

## 제 2 장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 제 2 장

###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 [제 2장]

1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 이니라. 3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어늘 8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

였느니라 9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궤사  
 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 유다는 궤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  
 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  
 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  
 늘 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이니까 하는 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  
 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 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15 여호와는  
 영이 유여 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  
 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  
 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 Ⅲ.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함 1:13~2:13

1.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 : 참된 영적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되었어야 할 자들을 선지자는 여기서 탄핵한다.

**명령** : admonition - 충고.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임을 잘 들으라고 경고한다.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심〉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이미 예시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순수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주어진 증거는 설교나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공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서적 신앙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든지, 나쁜 인상을 남기든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안교 일꾼 1905. 1. 17).

3.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종자** :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사 41:8)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씨앗’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현재의 암울한 경제적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그들의 농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흉년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신 28:20~24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농사일을 ‘견책’ 하심” 에 기록된 저주와 유사하다.

**똥** : 희생제물의 내장과 그 내용물, 제사장들은 제물을 불사른 다음 남은 내장 등을 진 밖으로 가져다 처리했다(출 29:14, 레 8:17). 제사장들은 그 불성실함으로 인해 이 더러운 오물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똥을 바를 뿐 아니라,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 곧 그 직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민 25:13)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알브올 숭배를 추방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심판이 제사장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말라기의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정결케 하셔서(불성실한 자들을 제하심으로) 제사제도(레위와 세운 내 언약)가 항상 있게 하셨다. 우리는 불성실한 제사장들에게 내린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그 민족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경건한 제사장들을(에스라와 같은) 보존하실 것이다.

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언약(berit)**이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그 의미는 바벨로니아어 “족쇄”, “속박” (biritu)이란 어원에서 유래된 ‘결합하다’ 는 의미. 곧 “당사자들을 하나로 엮는 약속” 이란 뜻이다. 언약이란 말은 말라기서에 6회 언급되었는데 그 중 5회가 2장에 등장.

- (1) 2:4,5,8(3번) - 하나님과 레위와의 언약 곧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신 것 지시.
- (4) 2:10 -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 언약의 율법을 범하는 것 지시.
- (5) 2:14 - ‘너와 맹약한 아내’ 는 결혼관계의 구속성 곧 결혼 예식 때 일생을 건 신실함의 약속은 아내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행하는 언약.
- (6) 3:1 -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대속의 희생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다(히 9:15),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 **어떤 중노인이 탄 자동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Retired-No Worry, No Hurry, No Phone, No Boss. 이 사람은 행복을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히려 행복이란 매이는 것이다. 부부사이도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의무로 매이는 것이다. 부자지간과 모녀지간 역시 매여 있을 때가 행복하다. 사랑이란 매이는 것이며 결코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 즉 노예일 때의 자신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인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말하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는 말은 그에게 나를 묶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언약관계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곧 레위의 제사장 직분에 주어진 선물이었다. 그 보응으로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했다. 초기 제사장들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다(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거듭해서 영적, 육체적 생명과 행복(평강) 두 가지가 순종의 축복임을 강조한다(신 4:40, 6:2, 30:15~20, 잠 3:1~2, 4:10, 22, 6:23).

**경외하게 하려함** :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그분의 복을 주신 것은 “그가 나를 경외했기 때문” 이라고 하셨다. 비느하스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 (민 25:13)으로 인해 그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언약을 약속받았다. 그러므로 그 언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다.

비느하스의 본보기는 말2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 옛 제사장의 신실함과 그로 말미암은 축복을 거론한 것은 “모든 백성 앞에 떨시와 천대를 당한” (9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새롭게 맺으려고 시도하시는 것이다.

6.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늘 8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이 옛 제사장들(레위)은 또한 진리(참된 가르침)를 가르쳤고, 바른 말을

했고(불의함이 없었고) 정직한 삶을 살고, 바른 가르침과 함께 바른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KJV : 불법)에서 떠나게 했다. 이 옛날 제사장들은 말라기시대의 많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 말라기는 옛날의 신실한 제사장들과 자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비교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 곧 지식을 지키고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말라기시대의 많은 제사장들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정도에서 떠나) 거짓을 가르쳤다. 그들은 경건치 못한 본보기와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Baldwin, 236).

### 〈제사장의 타락상〉

1.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도 않고 주인으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1:6)
2.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 제사 드리는 일을 귀찮게 여기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친 것, 흠 있는 것을 속여서 제물로 드린다(1:7~14).
3. 만군의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2:1~4).
4.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2:8)
5. 레위의 언약(신 33:8~11, 민 25:11~13)을 깨뜨린다.

### 〈바람직한 제사장상〉

1.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한다(2:5).
2.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2:6).
3.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2:6).
4.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2:6).



5.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 다. 그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는다(2:7).

9.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치 않음(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으로 인해 그 제사장들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 백성들은 이 영적 지도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직 전반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합한 벌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시하게 만드셨다. 게다가 제사장들의 죄악에 추가된 목록은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다. 제사장들은 율법과 관련된 일에 재판관의 역할을 맡았었고(신 17:9) 부자나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받고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렸음이 분명하다.(신 16:19) 한마디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개인적인 면에서나 직무와 관련된 면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받았다.

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궤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말라기는 각기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두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참으로 한 아버지를 두었으며, 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요, 창조주로 모신다. 고대의 모든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만이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의 안식일 준수에 지적된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형제로 여겨야 마땅하다. 말라기

는 그런데 왜 그들이 서로 부정직하게 대하고 범죄를 일으키는지 물어보았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악된 행동을 범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는 것이다.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은(KJV '신뢰를 저버리는') 결혼과 관계된 불성실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유다 백성들 서로간에 이루어지는 성실하지 않은 모든 관계, 곧 사업이나 결혼 혹은 기타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세기의 사상가 셀수스(Celsus)가 쓴 진실한 담화(True Discourse)라는 글이 기독교를 비판한 역사상 최초의 책이다. 그는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논리적으로는 이 비평이 맞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 사랑을 생활화하고 있었는지 증명해 주는 글이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사상적 배경, 사회적 지위, 인종과 민족을 알아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사랑한다”는 초대교회신자들의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회복되어야겠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 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짓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넓고 매우 깊고 매우 충만하여 어디든지 침투해 들어간다. 그것은 사단의 기만에 속아 온 자들을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끌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곧 언약의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PK, 369).

11. “유다는 궤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의 없는 행동을 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마저 언급하고 있다.

**가증한일** : (KJV '몹시 싫은 것' 종종 우상숭배와 우상 지시)말라기는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느 13:23~28).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 「70인역」은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으니” 로 번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불신자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명백히 어겼으며, 그 행위 자체는 그들의 신앙을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성결** : [NIV성소] 이교도와의 결혼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히는가?

- (1) 성전이 이교도들의 출입으로 더럽혀졌다.
- (2)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와의 결혼으로 더럽혀졌다.
- (3) 제사장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여 성전 봉사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다.

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 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 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깨는자** : “깨우고 있는자” , “파수꾼” , “보초”

**응답하는자** : 파수꾼에 의해 행동하도록 일깨움을 받는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자** : 이교도와와의 결혼을 금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여 그분의 성소를 더럽혔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제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인 느헤미야는 이교도와 결혼한 죄를 범한 제사장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았다(느 13:28). 이와 같이 이교도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악한 길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분 앞에 가지고 온 제물들을 받으실 수 없었다. 만일 받아 주신다면 그들의 악행을 승인하는 셈이 될 것이었다.

#### **IV. 종교의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함. 2:14~17**

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궤사를 행하도다.”

**어찌이니이까?** :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말라기는 그들이 아내에게 신뢰를 깨뜨리고 궤사를 행했다고 고발한다.

**어려서 취한 아내, 네 짝, 너와 맹약한 아내** : 아내에 대한 죄상을 심층적으로 강조한다. 아마도 그 부도덕한 제사장들 가운데 대다수가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엄숙한 맹세로 맹약한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아내 어찌면 이방 여인들을 취한 죄를 고발한다.

**궤사를 행하다** : NIV - 신뢰를 깨뜨리다. (히)bagad “어떤 물건을 덮다, 혹은 씌우다.” (beged 겹옷)는 의미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혹은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다’ 라는 의미.

15. “여호와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를 짓지 :** <개역표준번역>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영을 만드시고 유지하지 않으셨느냐”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어려서 취한 아내들을 배반하는 행동을 개혁신하게 요청한다. 따라서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질문은 男子와 아내가 “한 육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호와와는 그들의 합법적인 아내들과 이혼함으로써 결혼 관계 속의 연합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던 말라기 당시의 남성들을 강하게 정죄한다.

**네 심령을 삼가 지켜 :**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인도하려는 이 탐욕스러운 생각은 영혼 혹은 마음에서 기원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마 15:19)라고 깨우쳐 주신다.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궤사를 행치 말지니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 구약 가운데 나타난 이혼에 관한 가장 강력한 경고다.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배우자와 상처 입은 남녀들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므로 오직 부정만이 유일한 이혼 사유가 될 뿐이다.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 여인을 옷으로 가리우는 것은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룻 3:9). 반대로 법적인 자기

의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옷을 학대로” 가리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폭력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종류의 신실치 못한 행동에 대한 유감을 거듭 말씀하신다.

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 하는 자는 여호와와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 (마 12:36)을 것을 기억하라.

말을 골라서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영혼의 원수를 문 안으로 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기도로 그대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일하라. 그분의 천사들이 항상 그대 곁에 머물면서 그대의 말, 행동, 그리고 그대가 일을 행하는 방법들을 기록한다. 만일, 유익한 충고를 저버리고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나 비신앙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과 사귀다면, 그대는 곧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유혹의 길에, 사단의 전쟁터에 놓게 되어,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는 한 그의 꾀계에 의해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점으로 보나 하나님도 예민한 양심도 없으면서 일시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해 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익하고 경박하다. 그들의 담화 또한 저급하다(1보감 586).

말라기는 불신앙의 유대인들이 참으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아무 죄 없는 체하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반문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못하다고 비난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 (1)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선히 보시며,
- (2)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 (3)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인이 변성하고 악인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다. 그들은 “그는 오히려 악인들의 편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심판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인가?”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악인들을 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불평하고 이교도와 결혼하고 아내를 저버린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받는 고난은 대부분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다. 그들의 변호자이신 하나님은 진정 공의로우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이 불의를 모두 보셨고,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시간 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다. Logau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맷돌은 비록 느리게 돌아가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갈아내며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히 갈아내신다.”

### 〈심판의 시작과 죄의 도말〉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진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죄는 그 부모 앞이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

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GC, 482~486).

### 〈엄숙한 대심판〉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에 기록의 양(量)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난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술가의 광택 낸 감광판에 얼굴의 모양이 틀림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 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GC, 487).

### 〈자아의 남은 그루터기를 잘라냄〉



“실제적인 진리를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아의 남은 그루터기를 잘라내어야 한다” (편지 5, 1897).

### 〈말씀의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잘못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그러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 내는 기구이다” (원고 42, 1901).

### 〈깊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나가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며,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미쁘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 42, 1901).

### 〈종교가 그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우리 내면의 됴됨이는 품성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감화를 끼칠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거나 아니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곧 서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예리하고 엄격한 비판을 받는다. ... 친절한 말과 사려 깊은 행동과 참된 공손과 환대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호의적인 감화를 지속적으로 끼칠 것이다. 우리 중 누구에 대해서도 “종교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며, 그들과 하는 거래는 언제나 까다롭다” 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모아들이는 대신에 흠는다. 그들이 일관성 있는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을 사람들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우리 구주의 황금률과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위대한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세상에 제시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영문 시조, 1882년 1월 12일자), (OHC, 241).